

# 술과 시와 인생

## 1. 詩酒不二, 詩酒一道

흔히 우리는 三位一體라는 말을 흔히 쓰지만 그중에서도 조화의 극치를 이룬 것은 아마도 술과 시와 인생일 것이다. 술이 없는 인생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일 것이요, 시가 없는 인생은 꽃이 없는 별판일 것이다. 그런 사막과 별판에서 살아 갈 것을 상상해 보라. 얼마나 삭막하고 허허로울 것인가. 인생은 술이 있기에 풍요롭고, 시가 있기에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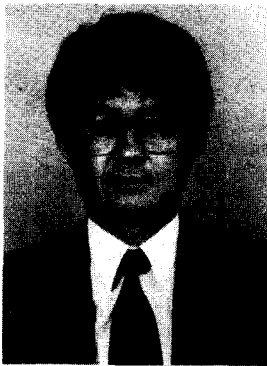
독일이 자랑하는 대문호 괴테는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사람에게에는 사랑이 있다고 했다. 별과 꽃과 사랑이 아름다움으로 삼위일체를 이루듯이 술과 시와 인생도 넉넉함과 멋스러움으로 삼위일체를 이룬다.

프랑스의 상징시인 보들레르는 “취하라, 언제나 너희는 취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은 거기에 있다. 유일의 문제다. 그러나 무얼 갖고 취하는가. 술로 또는 시로, 또는 美로!”라고 노래한 바 있다.

보들레르는 삶의 본질을 일종의 도취상태로 보고 술과 시로 취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술과 시로 취해 있는 상태, 그 속에 삶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보들레르의 시에서, 술과 시와 인생의 삼위일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동양사상의 일단으로 흔히 詩畫一道사상을 들곤 한다. 詩의 道와 畫의 道가 일치한다는 말이고, 때로는 詩中有畫, 畫中有詩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예술의 도를 지칭한 말이다. 그러나 시는 그림과 어울리는 것만은 아니다. 시는 술을 만날 때 그 아름다움이 더욱 빛난다.

자연속에서 음풍농월하며 풍류의 맛을 즐기던 옛날 선비들은 반드시 시와 술을 반려로 여겼다. 수많은 詩會에는 반드시 酒興이 따르고,



김 영 철

〈건국대 국문과 교수 · 문학박사〉

### ■ 目 次 ■

1. 詩酒不二, 詩酒一道
2. 삶의 지혜 - 般若酒
3. 렛테의 강 - 忘却酒
4. 해탈의 경지 - 無我酒
5. 아름다운 해후 - 因緣酒
6. 성스러운 儀式 - 祝福酒
7. 영혼의 보약 - 防衛酒

주홍속에서 주옥같은 시편들이 빚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詩道와 酒道가不二이고, 詩朋과 酒朋이 따로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현대에도 계승되어 수 많은 문인들이 술을 즐기고, 술을 노래하며 인생을 읊조리곤 했다. 우리 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소재는 역시 술일 것이다.

## 2. 삶의 지혜 - 般若酒

우리의 삶은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문제, 가령 고독이라든지 추억같은 것이 내면적인 것이라면,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자기를 세워가는 일은 외면적인 것이다.

물론 이 둘은 동전의 표리와 같아서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은 물론이다. 이 두 유형의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총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리라.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반려인 술은 어떤 삶의 문제에서는 늘 반가운 해결사로 등장한다.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주저하지 않고 우리 앞에 불쑥 나타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올린다.

한국의 대표적 민족시인 김소월은 술의 이러한 역할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다음과 같이 노래한 바 있다.

술은 물이되다, 물이 술이되다.  
술과 물은 사촌이되다. 한데,  
물을 마시면 정신을 깨우치지만  
술을 마시면 몸도 정신도 다 태웁니다.

술마시면 취케하는 다정한 술  
좋은 일에도 풀무가 되고, 언짢은 일에도 매

듭진 맘을 풀어주는 시원스런 술, 나의 혈관속에 있을 때에 술은 나외다.

되어가는 일에 부채질하고  
안되어 가는 일에도 부채질합니다.  
그대여 그러면 우리 한잔 돕세  
우리 이 일에 일이 되어 가도록만 마시니 괜  
창을 곁세

- 「술」 김소월 -

물은 정신을 깨우치지만 술은 정신을 불태운다. 세상사 모든 일이 얼핏 맑은 정신으로 해결될 것 같지만 천만에 말쑥이다. 인간의 이성은 때로 간교하여 농간을 부리고 일을 오히려 꼬이게 만든다. 理性的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었던 저 19세기적 희망이 20세기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루며 무참히 짓밟혔던 일을 상기해 보라. T.S 엘리엇의 20세기적 황무지는 바로 그렇게 믿었던 이성과 합리의 역설적 결과였던 것이다. 도취의 상태, 디오니소스적인 감성의 상태에서 오히려 지혜의 끈이 술술 풀려 나올 수 있다.

부부싸움으로 서먹해진 긴장관계가 한잔술의 대화로 오히려 쉽게 풀리는 경험은 흔히 겪는 일이다. 술 안먹는 남편보다 술마시는 남편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차가운 이성으로 논리적인 언어로 사랑을 나눌수는 없다. 사랑은 이슬처럼 촉촉히 느끼는 것이고, 안개처럼 가슴속에 잔잔히 스며드는 것이다. 술은 이들과 안개같은 속성이 있다. 술은 입으로 들어오고, 사랑은 눈으로 들어오는 법, 술을 통해 사랑을 성숙시키는 사랑法은 배울일이다.

소월은 술을 풀무요 부채라고 노래하고 있다. 매듭진 마음을 시원스레 풀어주는 것이기에 풀무요 부채이다. 흔히들 술은 만사가 술술 풀리

라고 마시는 것이라 하는데 소월은 이미 술의 이 신통력을 믿었던 모양이다. 술은 분명 삶의 지혜를 밝혀두는 般若瀟이다. 佛者가 참선을 통해 불도에 이르듯, 우리 중생은 술을 통해 삶의 도에 이를 일이다.

소월은 이 시에서 술은 나요, 나는 술이라 했다. 이쯤되면 酒仙의 경지에 들어선 것이라. 실로 소월은 술에 취해 삶을 유지했고, 취중에서 짧은 생애를 마감했던 시인이었다. 소월에게 있어 술과 시는 삶의 절대조건이었고, 영원한 동반자였다.

### 3. 렷떼의 강 - 忘却酒

술은 맏힌 일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맏힌 가슴도 풀어준다. 다음시를 보자.

세상이 각박해도  
다 그런 것 ……  
마주보는 너와 나는  
아득한 해변을 생각하자.

헤쳐온 과거와  
낮선 미래를  
숨막히는 시공을  
홀홀 벗어버리자.

묵은 애기도 보내고  
새 집도 지으며  
주먹으로 허공도 치자.  
누런이 드러내어 꺾꺾웃자.

- 「주막서장」 권오택 -

이 시에서 시인은 세상사 번민을 다 잊자고 한다. 헤쳐온 과거와 낮선 미래를 숨막히는 시공을 홀홀 벗어 버리고 아득한 해변을 걸으며

웃자고 한다. 분명 술은 현실을 초월케 하는 능력이 있다. 도깨비 방망이가 신통력을 부리듯 술은 현실을 넘어서 현실을 잊게 하는 괴력이 있다. 번민과 고뇌의 울타리 뛰어넘기, 그 일을 도와주는 돌도 없는 조력자가 술이다. 한잔술로 산화하는 번민, 한잔술로 녹아드는 절망, 그리하여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삶의 용기를 되찾을 수 있다. 뽕뽕 얼어붙은 가슴을 따듯하게 녹여주는 생명수 그것이 바로 술이 아니던가.

실로 인간에게 망각이 없다면 숨이 막혀서 살 수 없을지 모른다. 괴롭고 힘든 일,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 그 밖에 모든 정신적 상처들은 잊혀져야만 한다. 새집을 짓기 위해 헌집을 부셔야 하듯이 정신적 상처는 망각을 통해 無化되고 그곳에 새살과 새순이 돋아나게 해야 한다.

이 영원한 망각의 강, 렷떼의 강을 건네주는 배가 바로 술이다. 술이라는 망각의 배를 타고 우리는 희망의 피안으로 항해할 수 있는 것이다.

술이여,  
싸늘한 유리컵에 담긴  
한 사내의 증오를 위하여  
불타지 마라.  
마른 입술과 혀에  
뿌리는 甘露  
한잔의 술을 위하여  
등불은 醜醜의 뜰을 밝히고  
흔들리는 그림자, 의미의 外廷에서  
저미는 야만의 고기  
술이여,  
술보다 더 깊은 망각을 위해  
마시는 술이여.

- 「술」 오세영 -

시인은 술보다도 더 깊은 망각을 위해 술을 마신다고 했다. 명정의 뜰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시인은 술을 마신다. 그 망각속에 한 사내의 증오는 소멸한다. 렛떼의 강을 건네 주는 망각주, 그 술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절망에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 4. 해탈의 경지 - 無我酒

맺힌 일을 풀고, 맺힌 가슴을 풀어주는 술, 그 술은 때로 현실초월에서 자연으로, 때묻지 않은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술에서 깨어나 보니 내가  
산의 사타구니  
가랭이 빼고 누웠구나

아랫도리 단추 모두 풀린 상태로  
어젯밤 누구에게 유괴되어  
만취로 이 모양이나.

정신을 차리고 비척비척 일어나니  
내 몸 아래 밤내 깔린  
쭉대, 곰취, 미나리아재비

아, 나였구나  
산목련 향기에 흘려 마시고 또 마시고  
이 골짜기에 와 쓰러져

산 하나 여자로  
몰래 껴안고  
새벽까지 잔 남자

- 「산을 껴안고」 이 성선 -

이 시에서 시인은 인간과 자연이 혼연일체가 된 무아지경을 그리고 있다. 불교에서 無我는

고행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른 자아를 지칭하고 이를 때로 眞我(Anatman)라고 부른다. 이 시의 시인은 자연의 도를 깨우친 爲爲自然의 비경속에 빠져 들고 있다. 산목련 향기에 취해 산속을 헤매는 한 마리 나비에서 자연의 실체와 아이디어를 터득한 無我的 모습을 본다. 이 시에서는 노장철학이 가르치는 바, 무위자연의 사상, 또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외쳤던 철학자 루소의 목소리가 살아있다.

그런데 이처럼 자연일체의 경지에 이르게 한 매체가 바로 술이었다. 나와 자연을 이어준 연결고리는 산목련 향기를 품은 술이었다. 시인은 술에 취하고, 산목련 향기에 취하고, 자연에 취해 자연을 벗삼아 하루 밤을 지낸 것이다. 이쯤 되면 가히 酒仙에 이를 것이라. 주선이 어디 따로 있으랴.

자연속에서 술을 즐기는 신선이 바로 주선이 아니겠는가.

#### 5. 아름다운 해후 - 因緣酒

술은 이처럼 내면의 아픔, 고독과 번민에서 벗어나고 절망과 슬픔을 잊기 위하여 마신다. 그러나 때로는 서로 닫힌 가슴을 열기 위하여 타인의 행복을 빌어 주기 위하여, 또 때로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위해 마신다.

비어있는 가슴을 채우려는 자와  
비어가는 가슴을 채우려는 자가  
마주 앉아서  
슬픔처럼 진한 잔을 기울이면  
밤의 한가운데에 가라앉은  
純金の 해는  
서로의 잔에 떠오르고  
비어있는 가슴과  
비어가는 가슴의 사이로

서울행 호남선  
 완행열차가 지난다.  
 멀고 먼 옛날의 주점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비어있는 가슴을 채우려는 자와  
 비어가는 가슴을 채우려는 자가  
 마주 앉아서  
 슬픔보다 진한 잔을 기울인다.

- 「주점」전원범 -

비어있는 가슴과 비어가는 가슴끼리 서로 만나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위로한다. 현대인의 인간관계는 I와 it와의 만남이다. ‘나와 그것’ 그 만큼의 거리를 둔 만남이다. 서로 이해관계의 거리를 두고 서로를 살피며 자기를 숨긴다. 진정한 만남은 이 이해관계의 틀을 깨고 가면속에 숨겨논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이 관계의 틀을 부수고 가면을 벗겨주는 것이 술이다. 술을 마시면 가면을 벗게 된다. 오히려 가면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진다. 자기가 먼저 가면을 벗으면 상대방도 가면을 쓰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술마시는 일종의 가면 벗기기이다. 진실과 진실, 참모습과 참모습이 만나는 성스러운 의식이다.

술을 마시면 비어 있는 가슴과 가슴사이에 완행열차가 달리고, 주고 받는 잔에 순금의 해가 떠오른다. 타인과 타인, 가슴과 가슴을 이어주는 만남의 끈이 바로 술이다. 술은 비어 있는 가슴을 메꾸고 또 다른 가슴으로 흘러 넘쳐 결국 서로를 하나되게 한다. I와 it에서 I와 You로 다가서는 길, 그 길 위에 술잔이 넘치고 사랑이 넘친다.

30대 부부는 사랑으로 살고, 40대 부부는 관계로 산다고들 한다. 40대가 되면 20, 30대의 애뜻한 사랑의 열정은 식고, 아내와 남편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관계로서의 만남, 이 보

다 더 삭막한 만남이 더 있을까. 선생과 학생,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라. 요즘은 교육부재 현상을 가리켜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어도 제자는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선생과 학생 사이는 분명 기능적인 관계임이 틀림없다. 올바른 교육이 되려면 진정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40대 부부가 빠지기 쉬운 애정없는 관계로서의 만남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 한잔을 앞에 놓고 따뜻한 대화를 나눠 보자. 그러면 지난 젊은 시절의 오롯한 사랑의 열기가 곳곳에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 6. 성스러운 儀式 - 祝福酒

술은 타인의 행복을 빌기 위한 축복주이다.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로 축복을 내렸듯이 한잔의 술을 올려 타인의 축복을 기원한다.

죄없이 약한 사람들이  
 주점에 오가는 버릇을 배워  
 일과를 마친 황혼이 오면  
 나선형 층계를 내려 주점 에트랑제로 간다.

내 모든 행복은 다 주고서라도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행복되길 기도하며 나를 마시면  
 인생이  
 나 이상 아무런 과장도 안된다.

이유도 없이  
 약한 사람만 보면 고향 친구인가 한다.  
 행복은 이미 내 것은 아니다.

- 「주점 에트랑제」조병화 -

시인은 내 행복을 다 주고서라도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행복되길 기도하며 술을 마신다. 이 쯤되면 술마시기는 하나의 성스러운 儀式이 된다. 타인의 축복을 기원하는 의식,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축제인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나를 비워 남을 채워주는 利他主義는 참으로 고매하기 짝이 없다. 실로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술이다. 한잔 술을 마시면 그 만큼 넉넉해지고 자애로워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술을 마셔 부자가 돼야 한다. 행복 가꾸기, 행복의 정원을 가꾸는 생명수가 바로 술인 것이다.

한잔 술로 넉넉해진 마음은 때로는 우리의 존재, 그리고 존재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축복으로 승화된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술 취하고 싶은 날에는  
한잔 즐거움에 취하고  
한잔 슬픔에 취하고  
취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취합시다.  
이렇게 술 취하고 싶은 날에는  
이 세상 내리는 모든 눈을 맞으며  
이 세상 내리는 모든 비를 맞으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시다.  
이렇게 술 취하고 싶은 날에는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이세상  
섞여지지 않은 꿈 섞으며  
거리에서 거리로  
슬퍼하며 남아있는 사람을 위하여  
술잔을 권합시다.

- 「술노래」 윤홍선 -

한잔 술은 즐거움을 더하고, 한잔술은 슬픔을 덜어 낸다. 시인은 취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술을 마시자고 한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자 한다. 실로 술은 지상에 축복으로 내리는 눈이나 비와 같은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또 축복하기 위해 술잔을 들어야 한다.

## 7. 영혼의 보약 - 防衛酒

술 마시는 사람의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술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술 마실 자격이 있다. 그러나 술은 주도를 지켜서 마셔야 한다. 다시말해 술 마시는 맛이 있어야 술맛이 살아나는 법이다.

세상 사람들아  
술의 맛을 알고 마시나  
이태백의 맛을 알고 퍼먹나  
논개의 맛을 알고 퍼마시나  
도연명의 맛을 알고 퍼먹나  
황진이의 맛을 알고 퍼마시나  
알고 마시면 좋으련만

- 「술」 박정환 -

시인은 술은 맛을 알고 마셔야 한다고 노래한다. 이태백, 논개, 도연명, 황진이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퍼먹거나 퍼마시는’ 것이고, 맛을 알고 먹으면 ‘마시는’ 것이 된다. 술은 퍼먹어서는 안되고 마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 맛을 알고 마시는 주도를 익혀야 한다. 무절제한 음주가 추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한다. 술마시는 사람의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풍류를 알고

주도를 지켜야 할 일이다.

술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술을 죄악시하거나 술을 금기시한다. 육체적 건강에 매달리는 사람들도 술을 멀리한다. 종교에서는 이성을 마비시킨다 하여 술을 금한다. 술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만 모든 이들은 술에게 평등하지가 않다. 이래저래 술은 제약받고, 박해를 받는다. 어쩌면 술이 잘 쓰면 보약이 되고 못쓰면 극약이 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 술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큰 정신적 보약이다. 술을 삶의 지혜를 밝히는 반야탕이라 하지만 또한 술은 정신적 부패를 막는 방부제이기도 하다.

술을 마셔 육체적인 건강을 해칠지는 모르지만 그 대신 정신적 질환을 막아준다. 어차피 인간은 정신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비에 한번 젖으면 다시 젖지 않는 법이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항력이 필요하다. 밖으로부터 침투해 오는 삶의 세균을 막아주는 방부제가 바로 술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극의 본질을 비극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인생의 본질이 비극적인 것이므로 인생의 무대인 연극도 비극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비극을 보면서 삶의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다. 비극이 그렇듯이 술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한다. 끝없이 침투해 오는 삶의 병균들, 그들은 무엇으로 막아낼 것인가, 썩지 않기 위해 술을 마셔야 한다. 술을 마셔 저항력을 키워야 한다.

저녁 시간이 되어 한잔의 술을 생각하는 것은 알콜중독의 초기 증세라고 의사들의 말을 인용

하여 텔레비전에서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하루 종일 늘어지게 잠을 잤다거나 하여 배가 고프지도 않은 이들은 마시지도 않거나와 마실 자격도 없지만 온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에 어둠이 내릴 즈음이면, 출출함을 느끼며 한잔의 술을 생각한다는 것을 배가 고프다는 것은 위가 비어있다는 사실로 밖에 받아 들이지 못하는 과학자들이 알리가 없습니다.

술은 어디까지나 시에 있어서 상징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 「술」 박상천 —

육체적 건강만을 따지는 의사들은 술을 해독제로 규정하지만 그들은 진정 정신적 건강으로 마시는 술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존재는 육신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육신적 건강보다 오히려 정신적 건강이 더 중요한지 모른다. 의사들은 왜 그 사실을 모른척 하는 것일까. 시인은 온종일,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들만이 술마실 자격이 있다고 했다. 육체적 허기가 아니라 정신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마시는 술, 그보다 더 큰 정신적 위안이 어디 있겠는가.

박상천 시인은 또 다른 시에서 “가슴속에 칼을 품은 이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가슴속에 연약한 풀들을 키우는 이들이 밤마다 어둠을 바라보며 싸늘해져 가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해 잔을 듭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가슴속에 칼을 품은 무서운 사람들, 영리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술을 마실 자격이 없다. 가슴속에 연약한 풀들을 키우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들만이 술을 마실 자격이 있다.